

만민중앙소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처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이재록 인쇄인 김신경 편집인 빈금선
 등록번호 다-1840(1989. 7. 12.) e-mail: manminnews@hotmail.com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6-3번지 ☎02-818-7000

MANMIN NEWS

news.manmin.or.kr

제398호(구418호) 2009. 9. 6.(격주간)

이제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가득히...

전 세계인이 찾는 이재록 목사 저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쉬운 문체에 담아 100여 권의 다국어 책자 발간

청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어디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하는 분들께 인생 경영의 지혜는 물론 영원한 삶에 대한 조언까지 아끼지 않을 좋은 책 몇 권을 추천한다. 바로 기독교계 스테디셀러 작가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들이다.

그의 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깊은 영적 메시지와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며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회개와 치료의 역사도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풀기 위해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의 지난 세월이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함에도 문체가 쉽고 명쾌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며,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등은 물론 힌디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 100여 권의 다국어 번역 책자가 발간·유통되어 전 세계에 폭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

7년간 생사의 고비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신앙 여정을 진솔하게 펴낸 그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숨 다한 사랑이 눈물겹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 줘야 할 지 고민이라면 ‘십자가의 도’를 읽어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와 ‘구원’에 관한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신앙인의 필독서이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무의미할 것이다. 믿음의 단계별로 구분되어 눈에 그려지는 천상의 삶, 천국(상)하)을 읽으며 천국을 느껴보자.

더불어 ‘지옥’ 책자도 빼놓을 수 없다. 기도를 통해 받은 생생한 묘사로 침체된 신앙을 일깨워줄 것이다.

그의 60여 권의 양서들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텃밭이 비옥해지는 신고심비(信高心肥)의 가을이 되길 기대한다.

우림북 (www.urimbook.com)



이재록 목사 저서

| 포토 뉴스 |

학생주일학교 「영어 강좌」
 “여러분, 영어 참 쉽죠?”



7월 27일-8월 21일 ‘영어 강좌’가 우리 교회 번역국에 근무하는 조송원, 이상원 집사를 강사로 진행됐다. 여름방학기간 학생주일학교 학생들의 학구열이 뜨거웠다.

분향초등학교 교사 일행 방문
 “저희 감사 인사 하러 왔어요”



8월 25일 전라남도 장성 분향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이재록 목사의 학교발전 기금 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 칼럼 |

사랑의 확증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 후손은 죄인으로서 영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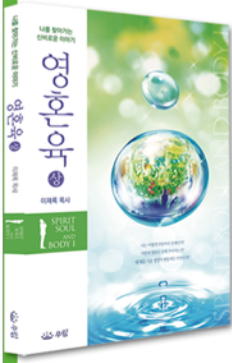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갖가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등 선한 일만 하다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삼 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글 이재록 목사 동아일보 연재 ‘실로암’에서

| 화제의 신간 |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독자 리뷰



영혼육상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킹

“이 책은 인간 본질에 대한 세밀한 탐구서이다. 나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mmkng3712

“참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나’, 그리고 ‘자아’라는 현주소를 발견케 되었기 때문이다”
 -paultgm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에 홀로 계셨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다. 그래서 시작하신 것이 인간경작의 프로젝트!”
 -kijerk

생명책과 기념책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계 20: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말 3:16)

세상에는 자서전이나 일대기, 전문서적, 소설, 시집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그중 생명책과 기념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의 상급이 연결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1.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은 백보좌 대심판 때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밝은 흰빛을 띤 생명책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서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해도 다시 사망의 길로 가면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 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거나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기념책

천국의 기념책에는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지 동기부터 결과까지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개인의 역사일 때는 개인의 이름으로, 단체의 역사일 때는 단체 총책임자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고 중요한 부분은 동영상을 보듯 자료 화면이 있어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뒷받침해 줍니다.

기념책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두껍고 황금빛을 띠며 표지에는 고급스런 문양이 새겨 있습니다. 표지만 봐도 매우 귀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적힌 사람들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위인들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일대기나 기념비, 동상 등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가는 영혼의 이름도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말라기 3



당회장 이재록 목사

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단계 중 악이 전혀 없는, 즉 믿음의 4단계 이상은 되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믿음의 분량」 책자 참조).

생명책은 푸른빛이 감도는 밝은 흰빛을 띠며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기념책은 황금빛을 띠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림으로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낙원, 1천층, 2천층의 영혼들은 기념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 그 사건이 기념책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3. 또 다른 천국의 책들

천국에는 생명책과 기념책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 경작의 역사들을 특징대로 분류하여 기록한 책이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을 흐름대로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의 지식을 배우게 되는

데, 새 예루살렘의 영혼들이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의 영혼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용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통해서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생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기념책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도 오직 기쁨과 감사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한 책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중 서열이 24장로 이상인 사람들이 연단받은 내용을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24장로가 해당되고, 여인의 경우에는 24장로들의 마음에 비추어 능히 견줄 만한 믿음의 서열까지 해당됩니다. 이 책에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연단을 받아 온전한 자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이 그들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내용 위주라면 이 책들은 그들이 연단받은 내용을 위주로 한 책입니다.

4. 천국의 책을 볼 수 있는 권한

천국의 책들 중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된 책도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펼치실 때만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기념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날을 택하셔서 책을 펼치고 일부분을 보여 주십니다. 어떤 날은 겉표지로부터 시작하여 책장을 쪽 펼쳐 보여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책의 기록 중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펼치시며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시면, 모두 행복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한 천국 생활의 한 단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8:10). 그중에서 특별한 내용들은 주제나 사안에 따라 또 다른 책들에 발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재록 목사 대표 저서 |



나의 삶 나의 신앙 1·2

멈추지 않는 감동과 진실의 향기

지금도 성경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15개국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참 생명을 주는 김동일의 메시지!



천국 상·하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

상: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행복과 영화를 누릴 황홀한 천국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메시지



지옥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옥의 참상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별 지침서

죽을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방인 복음 전파로 수없이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이는?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 강해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는 예수님의 일대기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분쟁이나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이나 영적 은사 등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제설교모음 기도 편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 시공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사건들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행복 만점, 기쁨 만점, 사랑 만점 우리 가족

박순렬 집사(2대대 15교구)

“여보, 나 오늘 교통사고 났어.”
“에~? 진짜로요?”

교통사고로부터 지킴 받은 남편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농담하는 줄로 알았다. 남편의 모습에서 사고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인즉,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남편은 횡단보도에서 파란 신호등을 보고 사람들이 절반쯤 건너갈 때 건너기 시작했는데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이다. 그런데 아픈은커녕 땅에 떨어지는 느낌조차 없었다.

황급히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전혀 이상이 없었다. 남편은 오히려 택시운전자를 걱정하며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잘 말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요구하지 않았다.

남편을 지켜 보호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 기뻐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것처럼 남편을 변화시킨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핍박하던 남편이 아닌가.

지난날

1992년 ‘만민중앙소식’ 지를 읽고 은혜받은 나는 다니엘철야기도회에 참석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니 누가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눈에 보이듯, 손에 만지듯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느낄 수 있도록 알려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영혼은 마치 물을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말씀의 바다에 폭 잡겨 오로지 천국을 향해 질주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점점 늘어가는 남편의 불평도, 자녀들의 고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마음 가득히 채운 주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삼았다.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지금 와서 생



좌측부터 아들 상규, 남편 이재우 성도, 딸 헤림, 그리고 나

각하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내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문득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일 4:20)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하였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을 돌아보며, 남편의 모진 말에도 웃는 낯으로 “네, 제가 잘할게요.” 하며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섬기고자 노력했다.

아들을 치료해 주시고 남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던 중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 상규가 공놀이를 하다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됐다. 뱃속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상규는 아프면 늘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르던 아이인데, 그날은 “아빠, 나 병원 가기 싫어. 교회 가서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될 것 같아. 아빠만 허락해 주면 나는 그러고 싶어요.”라고 했다.

그 주일 남편은 발을 땅에 잘 디디지 못하는 상규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었다. 상규는 해외 출장 중인 당회장님을 대신해 조수열 목사님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아무렇지도 않게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그 주부터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악수만 했는데 사마귀가 사라지다니

“엄마~ 나 사마귀가 없어졌다!” 헤림이의 목소리가 들려 있었다. “어~ 정말 없어졌네!” 손등에 있던 커다란 사마귀가 온 데 간 데 없다. 헤림이는 3년 전부터 발과 무릎, 손등에 사마귀가 30여 개 정도 퍼져 있었다. 손바닥에 펜으로 “사마귀 치료”라고 쓰고는 당회장님과 악수했을 뿐인데 사마귀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사춘기 소녀인 헤림이에게 커다란 사마귀는 상처가 되었을 게다.

믿음이 생긴 헤림이는 한 주 뒤에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다. 그 후 작은 사마귀들이 일부는 사라지고, 또 일부는 보는 데서 푹푹 떨어지기도 하면서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다. 이 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된 헤림이는 예전과 달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런데 딸아이보

사마귀를 치료받은 헤림이의 손(기도받기 전(좌)·후(우))



다 더 기뻐한 사람은 남편이다. 헤림이의 손을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던 남편은 앓던 이가 빠진 듯 기뻐하며 주일 저녁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며 십일조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엄청난 교통사고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이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게 해 달라는 소원을 응답받은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게다가 지금은 금요철야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밥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자라며 배려해 주는 남편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더 잘 섬겨주지 못한 것이 남편에게 미안하다. 남편 또한 좋은 교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한 것이 내심 미안한 눈치이다. 확실한 체험과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믿음의 길로 이끄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MMTC 유럽 ‘십자가의 도’ 캠프를 다녀와서

조예진 자매 (학생주일학교 고1선교회)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어지럽게 그려 놓은 낙서와 선정적인 포스터를 보며 영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성결의 새바람이 일고 있었다. 바로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십자가의 도’ 캠프. 당회장님의 권능의 역사가 담긴 ‘권능’ 비디오 상영 후 영국 런던 만민교회 제인 음폴로고마 선교사님의 간증 설교와 기다비츠 목사님의 찬양인도 후 손수건 기도가 이어졌다. 훈련생들도 저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을 꺼내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방언을 받아 행복해지는 이들... 순식간에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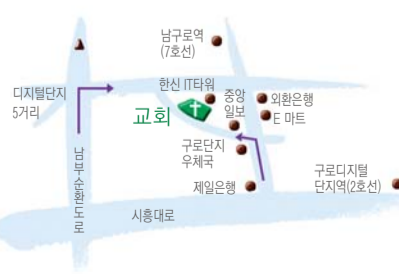
스페인어 통역 봉사를 위해 참석한 어느 성도님은 2주 동안 배 부분에 심한 피부염으로 고생했는데 노현숙 선교사님이 무안 단물을 뿌려 주고 손수건 기도(행 10:11-12)해 준 다음날 깨끗이 치료되었고, 이후 가톨릭에서 개종해 주님을 영접했다. 어떤 분은 프랑스에서 인터넷을 보고 참석해 시간 시간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세계 교구화’가 실감되었다.

‘나는 저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만민의 꿈을 먹고 자란 사람으로서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40	
	저녁 · 오후 1:30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딸의 경련성 사지마비 치료와 행복을 가져다준 성결 복음

미국 U.S.A

제니퍼 라캐리(25세)



제니퍼와 딸 첼시 알렉산더

성결 복음을 듣기 전, 제 삶은 공허함과 두려움, 근심과 눈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며 일어났지요.

저에게는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는 딸이 있습니다. 경련성 사지마비로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요. 그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으며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멀리했기에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딸과 함께 친정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TV를 켜줍니다. 그런데 TV에 연결된 케이블 박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나면서 GCN 채널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GCN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천국(상)』과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성결 복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온 집에 충성할 것에 대해 그 영적 의미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성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GCN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천국(상)』과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성결 복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온 집에 충성할 것에 대해 그 영적 의미를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없었다고 말이지요.

도했지요.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심제임스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고 뉴욕 인터내셔널 만민교회에 나갔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은 심제임스 목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사진 기도를 받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딸의 사진을 서울로 보내 기도를 받았습니.

그 후, 소아마비로 인한 경련성 사지마비를 동반한 딸의 안구, 근육, 수면 문제 등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뼈가 온몸에 돌출돼 있었고 사물을 손으로 잡을 만한 힘도 없었으며, 늘 의사를 찾고 약을 복용해야 했지요. 마치 식물인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사도 잘해 체중도 늘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걸을 수도 있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권능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플루를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페루 Peru

다니자 비아존 가브리엘 (11세)

지난 7월 11일 밤,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의 땀속까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설사와 함께 복통이 시작되고, 체온이 40도까지 올랐지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종 플루 감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 수용되어 많은 양의 항생제를 복용하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서둘러 페루 만민교회 장정연 목사님에게 전화해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았지요. 그때 저는 강한 불

이 제 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고,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떠올려 주셨고, 저는 죄송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회개기도를 한 뒤 전혀 내려가지 않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증세가 사라져 저는 그날 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장정연 목사님은 전화로 다시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고, 남아 있던 통증과 설사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제 몸은 신속히 회복되었지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저와 가족에게 큰 믿음이 되었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종 플루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수가 5000명을 육박하고 사망자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올 가을 대유행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Taiwan

태풍 '모라꼿'으로부터 지킴 받았습니다

홍미아오전 전도사(기독교관심협회)



대만은 지난 8월 7일 밤부터 3일 동안 태풍 모라꼿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총 3,0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빌딩과 상가, 주택 등이 무너지고 도로 및 교량이 유실되는 등 대만 전역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지요. 사망자 수도 500명이 넘는 정도로 50년 만에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전 세계로 뉴스가 타전되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제가 순회 사역하고 있는 고산지대 원주민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신주쓰레이 기도원 성전은 높은 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쉼 없이 내리는 폭우로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길이 끊기는 등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바람막이

없는 고산 지대에서 부는 강풍은 어찌나 센지 가옥이 통째로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의 도가니였지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 전 대만 만민교회에 전화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담임 김경희 목사님은 급히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이 상황을 알리고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이재록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만 전 지역에 3일 동안 계속해서 태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후 기도원 성전은 물론, 주변 가옥들과 시설물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1번지 백석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아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6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림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창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279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1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